

전문적 실천으로서의 셀프 호스팅

서버는 컴퓨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문제는 서버를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가 어디에 머무는지, 누가 그것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두자면: 당신의 데이터는 항상 누군가의 컴퓨터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거대 기업의 컴퓨터일 수도 있고, 당신이 관리하는 임대 컴퓨터일 수도 있으며, 당신 자신의 컴퓨터일 수도 있습니다. 제어권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규모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정보는 당신의 것이며 고객의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클라우드와 지하실 사이의 질문

이유 없이 사람들을 겁주는 단어인 '서버'를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서버는 냉각된 방에 있는 신비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또는 당신의 컴퓨터일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고객의 데이터를 폴더나 서류함에 넣어 사무실 책상 위에 보관해 왔으며, 그 일로 잠을 설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보가 종이 위에 있다고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었듯이, 디스크 위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클라우드' 또한 무형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의 컴퓨터이며, 거의 항상 멀리 있고 거의 항상 타인의 소유입니다.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믿고 있던 어느 날, 제 컴퓨터의 폴더에 문서 자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문서로 가는 바로가기만 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도치 않게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만약 그 '다른 곳'이 문을 닫거나 가격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저의 평온함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제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Cuaderno의 질문이 태어납니다. 말하기는 답하기보다 훨씬 쉬운 질문이지요. 당신 고객의 데이터는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데이터는? 공적인 논의는 마치 서로 맞선 두 가지 답밖에 없는 것처럼——대형 플랫폼의 클라우드냐, 스스로 구축하느냐——거의 진영 선택의 문제처럼 이 질문을 세웁니다. 그러나 길은 둘이 아닙니다. 셋이며, 그 어느 것도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천천히 읽어 보면, 그것들에는 더 많은 결이 있고,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팔든, 이것은 당신과 관련된 일입니다

기밀 유지는 변호사나 의사, 기자들의 문제일 뿐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고 대가가 따르는 실수입니다.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자각하지 못한 채 걸보기보다 훨씬 더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파 가게는 구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할부가 있다면 그의 경제 정보까지도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회사는 고객의 집 실내 사진과 그 주거지의 완전한 도면을 보관합니다. 청소 회사는 자신이 청소하는 사무실의 도면을 다루는데, 그것은 흔히 색과 숫자로 표시되어 어떤 직원이 어디로, 몇 시에, 어떤 열쇠로 들어가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 중 무엇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그것이 또 누구에게 가치가 있을지 자문하기 전까지는요. 그 청소 도면은 다른 눈으로 보면, 흠치러 들어가려는 자에게 완벽한 지도입니다.

비즈니스가 소규모이거나 소송을 변호하는 대신 소파를 파는 일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주인이 그것에 대해 덜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을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인 일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데이터는 어디에 머무나요?

이 질문에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둘 만한 것은, 「데이터」란 한 고객의 서류철이나 청구서와 견적서 묶음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와 나눈 당신의 대화도 데이터입니다——WhatsApp으로, 업무용 채팅 서비스로, Solo2로. 이어지는 세 가지 답은 순수함의 정도도, 선에서 악으로 가는 계단도 아닙니다. 같은 것을——통제권과 책임을——나누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자에게 맡기기. 가장 흔한 방식이며, 대다수에게는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Google Workspace나 Microsoft 365에 넣고 통째로 공급자에게 맡깁니다. 요금을 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만둡니다. 이것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당신이 자기 데이터를 손에 쥐는 것조차 못 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예컨대 어떤 클라우드 청구 프로그램들은 당신의 청구서와 견적서를 보관해 주고——아주 잘 작동합니다——하지만 정보는 그들의 시스템 안에 살지, 당신의 시스템 안에 살지 않습니다. 돈을 내는 동안에는 접근하지만, 떠나는 날이 되면 자기 자신의 이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데이터를 반쯤 인질로 잡아 두는 것이야말로, 적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당신이 경쟁사로 가는 것을 막는 바로 그것입니다. 편안함과 맞바꾸어 나는 통제권을, 그리고——소리 내어 말하지는 않은 채——책임이 더는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넘겨줍니다. 여기에 거의 한 번도 짚지 않는 결 하나를 덧붙입니다. 위임한다는 것이 미국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나는 똑같이 편안하게 모든 것을 유럽 공급자에게——예를 들어 Infomaniak——위임할 수 있고, 아무것도 직접 호스팅하지 않고도 「Schrems II」에서 본 국제 이전에 관한 의문의 상당 부분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 나머지 우주 전체가 아닙니다. 순수한 위임 안에도 이미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서버를 임대하고 관리하기. Microsoft나 Google이 주는 것과 같은 것을 갖되, 내가 직접 구축합니다. 유럽 제공자(Hetzner, OVH, Scaleway 등)에게 서버를 임대하고, 자유 소프트웨어(예: 파일용 Nextcloud)를 설치하며 내가 직접 결과를 관리합니다. 무엇이 어디서 왜 돌아가는지 파악하며 진정한 제어권을 얻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여전히 제3자의 데이터 센터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바뀝니다. 위임할 경우 무언가 잘못되면 탓할 대상이 있습니다. 직접 관리할 경우, 그 잘못은 십중팔구 당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기. 이것은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선택지이며, 이 수첩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호스팅하기 위해 거대 데이터 센터 안에서 24시간 켜져 있는 엄청난 서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의 컴퓨터는 이미 서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봉사합니다. 사무실에 켜두고 고객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혹은 집에 있을 때 모바일로 접속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버'가 아니라 '사무실 컴퓨터'라고 부르지만, 앞의 두 옵션과 정확히 같은 일을 합니다. 제어권은 최대치이며 근접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는 당신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꾸밈없이 말하자면, 그 대가로 책임 또한 최대치가 됩니다. 정전이 되면 뉘른베르크에 대기 중인 기술자는 없습니다. 차단기를 올리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게 하려면 노트북과 컴퓨터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며, 이 길을 택하기 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사무실 컴퓨터를 다시 활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진 기기가 있는데, 바로 NAS입니다(Synology, QNAP 등이 만듭니다). 이 Cuadernos에서 우리가 본 거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특화된 컴퓨터로, 여러분이 데이터 센터에서 빌릴 법한 바로 그 종류의 기계이며, 다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뿐, 모니터도 키보드도 거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화면과 키보드를 연결하면 평범한 컴퓨터가 되고, 여러분의 PC에 알맞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NAS가 됩니다. 차이라면 NAS는 이미 준비된 상태로 온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사서 집이나 사무실에 전원을 꽂으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매달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값을 치르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사업에 쓰는 다른 어떤 도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켜고, 끄고, 원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이기에, 두 대를 두는 데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는 집에, 하나는 사무실에— 혹은 안전한 곳에 한 대를 더해 세 대로, 서로 동기화해 둘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유지해 주기를 기대지 않는, 여러분만의 이중화입니다. 결국 자체 호스팅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비와 소유, 장소,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조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이름 붙이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우리는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Solo2에서는 그 다리를 응용프로그램 자체가 놓습니다. 당신 사무실의 컴퓨터는 당신의 신뢰하는 기기들에게만, 그리고 언제나 암호화 아래에서 접근 가능한 채로 남고, 나머지 기기들은 스스로 그것에 다시 연결됩니다. 고객이 당신과 이야기할 때, 고객과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컴퓨터이지 —제삼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전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필요에 대해 오늘날에는 바로 이것을 —자기 장비에 데이터를 두고 밖에서 그것에 닿는 것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이, 자유로운 것이든 독점적인 것이든, 존재합니다. 우리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상이지, 상표가 아닙니다.

중복성(Redundancy)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즉각적인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그것은 합리적입니다. '모든 것을 사무실 컴퓨터에 두었는데, 만약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우리가 거대 제공자들에게서 상상하는 안전망이 생각보다 소박하며 충분히 흉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둘 때, 저는 그들이 여러 곳에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And 아마 실제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 어쩌면 세 번째 장소에 말이죠. 하지만 그 중복성은 무한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소유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이며, 내가 거의 확인하지 않는 믿음을 준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일 뿐입니다.

똑같은 망을 나 스스로도 짤 수 있으며, 결정적인 이점까지 가집니다. 나의 일상적인 서비스는 사무실 컴퓨터에 있습니다. 거기서 암호화된 복사본을 동료나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무실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원한다면 아까 말한 유럽 제공자에게 또 다른 암호화된 복사본을 둡니다.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외부에 두는 것은 나의 서비스나 평문 데이터가 아니라, 오직 나만이 열 수 있는 암호화된 복사본입니다. 외부 제공자는 열쇠가 없는 닫힌 상자를 보관할 뿐입니다. 나는 그에게 정보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는 몇 바이트의 데이터를 맡기는 것뿐입니다.

안전해질 때까지는 안전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논리보다 더 잘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저는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백업 서비스인 CrashPlan의 충실한 고객이었습니다. 회사와 집의 모든 컴퓨터, 가족의 컴퓨터까지 모든 것을 그들의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원하는 빈도로 복구할 수 있는 버전들이 있었고, 몇 달 전의 특정 파일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첫 백업 이후에는 차분만을 암호화하고 압축하여 전송했기에 별다른 노력 없이도 거대한 백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문서부터 디스크 전체에 이르기까지 저를 여러 번 구해주었습니다. 가격은 수년에 걸쳐 올랐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은 CrashPlan이 계산 착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약상 공간과 시간 모두에서 무제한 저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에 시간을 곱한 것 — 수년의 기록, 몇 분마다 생성되는 버전들 — 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어느 날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서비스가 종료됨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세련되게, 거의 1년이라는 넉넉한 기한을 주었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전 디스크의 10년 넘는 버전별 복사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거기서 당신은 모든 것을 다운로드할 방법도, 그것을 담을 장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새로운 저장소 비용은 거액이 들 것입니다.

나는 없어서는 안 될 네 가지를 건졌습니다. 나머지는 스위치를 내렸을 때 사라졌습니다. 나는 마음이 놓였고, 내 정보는 안전했습니다... 안전하지 않게 될 때까지는요. 그것도 배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CrashPlan은 흠잡을 데 없이 처신했습니다 — 여러 해 뒤에 부끄럽게 처신했던 Evernote와는 달리 — 그저, 클라우드에 있던 나의 수호천사가, 온전한 권리를 가지고, 그것이기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나에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기술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낄 때, 예방적으로 행동합니다. 복사본을 만들고, 대비책을 세우며, 합리적인 판단으로 의심합니다. 반대로 책임이 크고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게 있다고 — 잘못 — 믿을 때, 사람은 안주하고 방관하게 됩니다. 그 '위임된 평온함'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가감 없이 말하자면, 그것은 무책임의 한 형태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준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용한 무책임은 자녀를 가장 비싼 학교에 등록시키고, 나중에 석사 과정 비용까지 대주며 그것으로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고 믿는 부모들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들은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이의 가치관과 자존감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약 25세가 된 그 아이가 일할 줄도 모르고 예의도 없다면, 그 잘못된 돈을 받은 학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

분하다고 믿으며 위임하고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제3자에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데이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며, 최근의 역사가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오십 년이나 백 년 전, 한 전문가는 고객의 것을 폴더에, 자기 사무실이나 집에 보관했고, 그것들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사라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계로 넘어왔고, 놀라울 만큼 손쉽게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그것은 어느 다국적 기업의 컴퓨터에 지나지 않습니다——올리고는 걱정하기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자주 사고가 일어나고, 모든 것을 잃는 기업이 있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Google 탓이다, Microsoft 탓이다. 아닙니다. 정보는 당신의 것, 혹은 당신 고객의 것이지만, 책임자는 당신입니다.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호스팅하는 것은 기술적인 번덕이 아닙니다. 무엇이 어디에 왜 있는지 알고 있었던 수십 년 전의 그 평온함을 되찾는 일입니다. 한편 데이터 보호는 급격한 진자의 움직임을 겪어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객 데이터를 노출하던 무법 상태에서, 배달원에게 고객의 전화번호를 건네주는 1인 자영업자에게조차 비정상적으로 가혹하게 떨어지는 요구 사항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저는 목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균형이 우리를 면책해 주지는 않습니다. 행정 기관이 대규모로 추적하고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는 날, 규모는 더 이상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준수에 도움이 되며 이를 증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정보가 당신의 것일 때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 탓할 제3자도 없고, 그 제3자의 실패로 인해 당신이 노출될 일도 없습니다 ——.

책임은 또한 보호한다

이것을 그늘 없이 그린다면 정직하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중개자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의 몫을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본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그리고 법적 책임——RGPD의 책임——을 지는 것. 그 책임은 사실 한 번도 온전히 당신의 것이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각주의 참조가 조항들을 자세히 밝힙니다). 일이 있고, 무언가가 때 아니게 고장 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이라는 그 말을 둘러싼 두려움은 눈금이 잘못 맞춰져 있습니다. 문을 닫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당신의 파일을 잃거나, Google 포토에서 당신의 사진을 잃는 것이, 당신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그 중요한 문서 폴더를 잃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사라지면 곧바로 없어졌음을 알아챌, 바로 그 폴더 말입니다. 당신의 것이라 느끼는 것은 보살피고, 남의 손안에서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옛날의 사진 앨범을, 서랍에 보관된 인화된 종이 사진의 앨범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자기 가족 앨범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앨범이 안에 든 채 집이 불탔다는 이야기는 들립니다. 그냥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반해, 모든 사진을 Google 포토나 Apple 포토에 두었다가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그 이야기는 몇 달마다 돌아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Google 포토는 당신의 사진을 보살핌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자식과 손주가 담긴 앨범을 보살피듯 보살피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어떤 데이터 센터도 고쳐 주지 못합니다. 책임은, 그것이 당신의 것일 때, 단지 짐이 아니라 가장 좋은 보장이기도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네 가지 질문

어떤 형태로든 이 단계를 밟기로 고려하고 계신다면, 먼저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냉정하고 정직하게 자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당신의 데이터 중 어느 부분을 잃거나,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면 아플까요? 그리고 「판에 박힌」 것을 제쳐 두는 데에는 조심하세요. 청구서 이력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그램을 바꾸는 순간 그 청구서들이 공급자의 것이었지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기껏해야 PDF로 인쇄할 수 있을 뿐, 더는 그 안을 검색할 수 없다는 것을요. 이것은 민감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존해야 할 것이 정말로 누구에게 속하는가의 문제입니다.
2. 어느 선택지가 당신의 실제 기술적 역량에 걸맞습니까? 잘 관리된 자기 컴퓨터는 누구나 손댈 수 있지만, 서버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 정직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서버 전체를 세우는 것과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합리적인 중간 지대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장비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밖에서 그것에 닿게 해 주는 프로그램——자유로운 것이든 독점적인 것이든——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최선의 균형입니다.
3. 가장 최악의 날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보안 침해, 하드디스크 고장, 서비스 제공업체의 폐업, 담당 기술자의 병가 등. 만약 계획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로 시작된다면, 그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4. 내일 당장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일을 잘 수행하는 것과 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은 후자를 요구합니다.

보편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물려받게 되는지에 대한 정직한 성찰을 거쳐 채택된, 상황에 맞는 답변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선 단순한 확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데이터는 누군가의 컴퓨터 안에 머뭍니다.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질문은, 그 컴퓨터가 누구의 것이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셀프 호스팅은 미덕도 악덕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역량과 책임의 자취를 동반하는 도구입니다. 질문은 당신의 자산을 호스팅할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지원 네트워크와 함께 호스팅할 것인가여야 했습니다. 데이터의 제어권을 되찾는 것은 지하실로 돌아가거나 모든 것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책상 위 폴더 안에 있었을 때처럼, 우리 자신의 것에 대해 다시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이야말로,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전문가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참고 문헌 및 관련 자료

- 규정 (EU) 2016/679 — 제28조 (수탁자), 제32조 (처리의 보안), 제33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37조 (데이터 보호 책임자 지정).
- 스페인 데이터 보호국 (AEPD) —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의 위험 분석을 위한 실무 가이드* (현행판). 자체적인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자를 위한 프레임워크.
-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 (EDPB) — *Guidelines 1/2024 on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ased on legitimate interests*. 자체 인프라 결정에 있어서의 비례성 원칙 검토에도 적용 가능.
- 유럽 위원회 — 유럽 관할권 내에 설립된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의 공공 디렉토리. 유럽 매니지드 호스팅 옵션을 식별하기 위한 행정적 출발점.

- Nextcloud GmbH (독일) – *Nextcloud Enterprise 아키텍처 및 규정 준수 문서*. 유럽 제공업체에 의한 셀프 호스팅 및 매니지드 방식의 자유 소프트웨어 문서화 사례. 2016년부터 유럽 관할권 하에서 유지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참조로서 유용함.

[← 이전24개의 단어: 암호학적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다음 →진정한 개인정보 보호 vs 겉모습뿐인 보호: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

최근 읽은 글

- [성찰 · 2026년 6월 29일 당신은 익명이 아닙니다](#)
- [성찰 · 2026년 5월 27일 서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 [분석 · 2026년 5월 26일 진정한 개인정보 보호 vs 겉모습뿐인 보호: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

이 기사를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곳에서 활용하십시오.

[↓ 마크다운](#) [↓ 텍스트 형식](#) [↓ PDF](#)

파일이 기기에 다운로드됩니다. 해당 위치에서 저장하거나 Solo2로 가져오거나 원하는 곳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Cuadernos는 전송 대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봉인 · SHA-256 499502dce5734736d7e1a873ba61c380371e4a08d154bf4e6a1d54e1367d2815

[기능](#) [새로운 소식](#) [블로그](#) [도움말](#) [소개](#) [문의하기](#)
[투명성](#) [검증](#) [개인정보](#) [이용약관](#) [쿠키](#)

Cuadernos Lacre · [Menzuri Gestión S.L.](#)의 간행물 ·

저자: R.Eugenio · [Solo2](#) 팀 편집

이 웹사이트는 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가 로드하는 모든 것은 저희가 작성하거나 감독한 것이며 유럽 서버에 호스팅됩니다. 즉, 익명 방문자 카운터(Umami, 자체 호스팅)와 언어 선택기 및 귀하의 라이트/다크 테마 설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JavaScript이며, 그 설정은 귀하 자신의 기기에 저장됩니다. 외부 회사의 리소스 없음, 추적기 없음, 프로파일링 없음, 데이터 공유 없음. 저희를 팔로우하려면: [RSS](#).